통권 146 호

#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12. 12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국가보안법 제정 55돌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3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남산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송두율 교수 부인과 아드님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비롯해 출소장기수 선생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25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걷기대회를 지도했던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5돌 날에 구속되었고 걷기대회에 함께했던 범남본 이종린 명예의장이 세계인권선언 55돌 되는 12월 10일 강제연행되었습니다.

〈사진: 민중의 소리〉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달의 시 조현옥 • 4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정상철 전라도닷컴 기자 • 6 /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김종선 화물연대구속자부 인 • 8 / 감옥에서 온 편지 임상우 • 9 / 특집 I 부안 핵사태 양이원영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 10 / 특집 II 다가오는 통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 13 / 행사소식 김도균 회원 • 15 / 슬픈 일이 있었어요 • 16 / 나의 삶 나의 일터 박정범 편집위원 • 18 / 시사만화 • 19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0 / 재정보고 • 27 / 회비납부 • 2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naver.com
**민가협 :**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는 참여정부의 인권정책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민중서관에서 펴낸 국어사전은 '인권'을 정의하여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라 했다. 그 기본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전문과 30개조로 이루어진 세계인권선언은 21조까지 시민적·정치적 권리조항이고, 나머지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내용은 인권보장의 전형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날이었다.

인류헌법의 전문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이 55돌을 맞고 있는 바로 이날 또다시 반인권의 행패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근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97개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자리에 긴박한 소식이 날아 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이 보안수사대에 의해서 불법강제 연행되었다는 급보였다. 하루가 멀다하게 불법강제연행과 구속 기소 사태 등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또 다른 곳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도 함께하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5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지만 이같은 관행적인 기념과는 달리 오늘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야만시대로 치닫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개혁과 통합〉〈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출범했던 참여정부의 인권정책—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몇 가지만을 꼽아보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 반인권 정책의 극치, 침략전쟁

맨 먼저 꼽아야 할 반인권정책은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점이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가 인권이라면 전쟁은 가장 잔인한 반인권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킨 국제연합(UN)은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함을 인류적 양심으로 반성하며 그 참혹한 불행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다. 바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 및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했었다. 또한 부당한 전쟁과 그 참상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평화와 번영정책을 지향하겠다던 참여정부는 석유패권을 노린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발을 들여놓았다. 유엔이 승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정신을 외면하며 부당한 침략전쟁에 파병하고 있었다. 비록 비전투병이라 하지만 침략전쟁의 지휘를 받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군대라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침략군대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미국의 부당한 점령정책에 동참하여 전투병까지 보내기로 결정했다. 주권국가라면 부당한 파병강요를 거부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국가의 존립근거가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있다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면하는 정책이야말로 국가존립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부대를 곧바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답지 못한 공안탄압

다음으로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공안탄압이다.

위에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불법강제연행을 말했었지만 국가보안법 제정 55돌이 되는 지난 12월 1일엔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연

행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과의 전화 또는 전송 등을 불법 도청한 것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6·15 남북공동선언 시대가 아닌가. 실제로 6·15공동선언 뒤부터는 공동사무국과의 통신교환을 사실상 알면서도 묵인해오고 있었다. 남북 사이에 반목·대결 시대에서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동선언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던가. 6·15공동선언 시대에 더이상 이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새삼스럽게 몇 년 전 전화·전송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려는 공안당국의 냉전 잣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그 출범을 전후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말한 바 있었다. 당국자의 말대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국회의 몫이라 한다해도 이미 명분을 잃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지 않게 수사지침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의지를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2일 송두율 교수의 귀국을 기회로 수구냉전세력과 공안기구들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녹슨 국가보안법의 날을 세워 시대역행적인 냉전공세를 강화시키고 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해외에서 헌신해 온, 그것도 학자의 양심으로 학술활동을 통해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 온 학자를 냉전공안 잣대로 법정에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를 대통령을 비롯하여 책임있는 당국자가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일 다시 한총련 11기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임의규정하고 잇달아 11기 대의원들을 잡아가두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말하고있는 〈한총련이 북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을 공안당국자 말고 누가 믿겠는가. 오히려 한총련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 오고 부당한 침략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며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오고 있지 않았던가. 또한 공안당국은 아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군인 등 10여 명을 불법강제연행하고 강압수사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안탄압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6·15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반문명·반통일 행패이며 세계인권선언이 말한 인간의 기본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행패이기도 하다.

## '참여' 정부에서 내몰리는 서민 생존권

현 정권의 또 다른 반인권정책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제도 등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노동 정책 아래 최근 잇단 분신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체결, WTO 쌀 수입 개방 등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운동가와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생계형 노점상과 재개발을 빌미로 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로 많은 도시 빈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는 개혁이니 참여민주주의니 평화 지향 등을 내세웠으면서도 오히려 군부독재시대로 복귀하려는 듯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반민주악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악하려하고 있다. 이른바 테러를 방지하겠다며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불편을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참여정부의 이 같은 반인권 정책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라!**
-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반통일 악법을 없애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구속 통일애국인사와 청년학생들을 석방하라!**
- **민중생존권 보장하고 노동자·농민·도시 빈민 등 구속양심수를 석방하라!**

# 이용석 동지를 묻으며

조현옥 시인

바람이 차가운 날 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노동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은 빛을 뿌리고
창백한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착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적게 먹고
가장 적게 잠을 잔 노동자가

가장 곤란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지
거짓말 같은 삶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보처럼
속고 살아 왔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 만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정치가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자본가의 편이 되어
노동자를 압살하였습니다

노동자 살인 정권 그것이
자본주의 본래 얼굴입니다

정치는 제국주의 편이 되어
노동자를 억압하였습니다

노동자 살인 정권 그것이
식민지의 본래 얼굴입니다

오늘의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법을 통과시켰는지
보면 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는 것
어떠한 굴욕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제일인 줄로 만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생지옥이였습니다

식민지 자본주의는

노동자 농민 민중의 피를
빨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단결하여 우리들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그것은 곧 국가와 민족
패망의 길이라고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나라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누가 양키에게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노동자 농민
애국 청년 학생들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가 아닙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양키에게
나가라고 말 한마디 못하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살아있는 매국노입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참 민주주의입니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착취를 끝장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고
노동자의 목숨을 요구하고
영원한 희생만을 강요합니다

자본의 착취의 그물이었습니다

식민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면 쇠파이프로
몽둥이로 내려찍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오로지 자본가만을 보호합니다
오로지 제국주의만을 보호합니다

삶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비굴한 자가 가장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의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밤하늘에 별처럼 맑은 눈동자
이용석 동지여!

그대의 눈동자를 가슴에 묻습니다
조국이 미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 날에
그대의 맑은 두 눈동자는

밤하늘에 별이 되어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 "혁명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겠다"

정상철 전라도닷컴(www.jeonlado.com) 기자

*0.75평짜리 독방에서 살았다/얼마나 좋았을까/사과박스 두 개 밀어넣으면 숨찰 어두운 공간에서/콩밥도 먹고 똥도 싸고 심심하면/똑딱똑딱 시계 초침도 세고/울다가 웃다가/0.75평에서/세상을 떠날 그날까지/바지에 찍 피오줌을 갈기고*

곽재구시 「0.75평」중

30년이 넘는 시간을 남쪽 땅에서 요구하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0.75평 독방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그 영혼들을 통칭해 '장기수' 라 부른다.

사람 하나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침침하게 웅크리는 공기와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긴 시간의 사회적 감금을 이겨낸 사람들. 이들에게 독방은 감옥 자체였으며 집이었고, 세상의 외진 그늘이었으며 벽이었다.

빛의 흐름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독방에서 유영쇠(76 · 익산자선원)선생은 30년의 시간을 보냈다. 54년 4월 김제에서 붙잡혀 미결수로 2년, 무기형을 언도 받았다가 4 · 19로 감형이 되어 20년, 그리고 사회안전법에 의한 4년의 보안감호 두 번을 합친 8년이 보태져 정확히 30년의 세월이었다. 그는 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셈이다.

## 경작하는 농민이 토지를 가지는 세상을 위해

김제 봉남면 대송리에서 태어난 그는 혹독한 가난으로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의 문턱조차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욕구를 다 접어두지는 못하고 야학에 들어가 국문을 익혔다. 약간의 배움을 토대로 그는 나이 18살이 되는 순간까지 독학으로 국문과 한문을 공부했고, 그 해에 나라는 일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자 세상은 문맹 천지가 되었다. 당장 입에 넣을 쌀 한 톨이 귀했던 사람들에게 배움은 사치였고, 설사 경제적 여유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일본어를 배워 국문을 아는 사람은 열 명 중 하나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해방 이후 고향 김제에서 야학당을 열어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글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었다.

48년 여순사건에 가담했다가 고향으로 몸을 피해 들어온 친구를 만나면서 그는 혁명이란 말을 처음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나머지 운명까지도 결정했다. 그는 혁명이란 단어 안에서 거창한 의미보다 형평성 있는 세상을 떠올렸다.

"단지 그 때 나는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들의 것이 되는 세상을 믿었다. 그런 세상이 오면 몸 기댈 땅 한 평 없이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에게 토지가 생기고, 세상은 이치를 되찾을 줄 알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그는 김제지역 의용군 1기로 입대해 모악산에서 무장 빨치산 활동을 했다. 52년 국군들의 대공세 이후 수많은 빨치산들이 죽어 나간 이후에는 고향 김제에서 세포조직을 넓히는 사업을 행했다. 그 일은 그가 체포되던 54년의 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미 휴전이 된 이후에도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야학 활동 시절의 그를 곁에서 지켜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믿었다.

## 목숨과 맞바꾼 전향투쟁

'스무 살 때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요, 마흔 살에 아직도 사회주의자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는 말이 있다.

이 진술대로라면 장기수들은 모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이치와 타협하여 자신의 안위를 돌볼 줄 아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아직 가슴이 뜨거웠을 때 담은 사상을 죽음과도 바꾸지 않는 신념은 반대로 삶을 이어주는 힘이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서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수들이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감옥 안에서 혁명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것은 전향투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살아서 혁명을 완수하면 좋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0.75평 비좁은 독방 안에 갇혀서 그가, 수많은 장기수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단지 자기만의 신념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이미 그는, 그리고 영혼이 붙잡힌 모든 장기수들은 알고 있었다. 조국이 쉽게 통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히 장기수들 누구도 살아서 밖으로 나간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 단지 "혁명은 승리한다"는 신념 하나로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간수들과 끝없는 싸움을 펼쳐 나갔다. 그 신념 안에는 역사는 바르게 전진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역사를 반대로 돌린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깊게 놓여 있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갔다. 겨울에는 굶어죽거나 얼어죽고 봄에는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어나간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버티는 힘이 강한 만큼 적들이 행하는 탄압의 강도도 높아졌다.

그도 탄압의 와중에 전향서를 썼다. 그러나 그 전향서에 진리는 없었다.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것처럼. 전향서를 제출하고 얼마 후 그는 곧바로 전향 취소 신청을 했다. 그는 "전향취소 투쟁이 전향반대 투쟁보다 훨씬 힘겨운 싸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향취소 투쟁의 와중에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담보로 싸운 자살 협박으로 전향 취소를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의 이북 송환이 이루어졌다. 그때 그는 북으로 가지 못했다. 전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송환 자체를 몰랐다. 그가 송환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송환자 명단이 확정된 다음이었다. 그는 2차 송환 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북으로 가는 것과 남쪽에 남는 선택의 기점에서 아직도 남쪽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한번쯤은 북에 가보고 싶다. 그러나 장기수들의 얼굴만 봐도 긴 투쟁의 세월이 느껴지고 새롭게 싸울 힘을 얻는다 말하는 후배들을 보며 "그렇게라도 힘이 돼주고 혁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다.

긴 이야기 이후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이력과 신념을 모두 담아낸 말 한 마디를 토해냈다. 그것은 "남이든 북이든 혁명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겠다"는 말이었다.

#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멋진 신랑을 두어서 행복합니다"

김종선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김달식 동지(현재 구속 중)의 부인

[편집자 주] 원래는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리상의 한계가 있어 이번 호에서는 구속 양심수의 부인이 직접 글을 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세상에 저 보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글을 올리려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식씨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삶은 산처럼 무겁습니다.

한번씩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해 볼 정도로 힘겹지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음은 진한이, 제 사랑하는 아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지만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닥쳐온 어려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한이를 원망하는 나쁜 엄마였었죠.달식씨에 대한 원망이 아무 죄 없이 태어나 지금 젖니를 드러내며 방실방실 웃고 있는 진한이에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제게 있어 달식씨는 무심하고 무뚝뚝한 남자입니다. 진한이를 갖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제게 사과 한개 사다 줄 시간도 없이 바쁜 사람이었고, 무거운 몸 끌고 출산준비 하러 다니는 제게 수고했단 소리 한번 해주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일에 대해선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가정에선 0점 가장이었죠. 6월 9일 자진출두해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달식씨가 화물연대라는 곳에 몸을 담아 그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화물노동자들의 짐을 혼자 짊어진 냥 의식에 있어 변화한 달식씨의 모습을 보고 놀랐으니까요.

그 마음 100분의 1이라도 제게 베풀었다면 달식씨를 원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화물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달식씨의 의식이 저렇게 바뀔 수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대리인으로 자리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달식씨가 걸어온 길을 엿볼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제 자신도 모르게 달식씨에 대한 원망이 풀리면서, 그동안 지지해 주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 저의 부덕함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죄의 마음으로 편지와 면회, 전자서신으로 달식씨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다짐하며 지내온 180여일의 시간. 전 이 시간들이 오히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밖에 있으면 한달에 서너 번 집에 들어오는 게 고작이고 말 몇 마디 붙일 사이 없이 피곤함에 곯아떨어지는 모습만 보며 지냈는데, 교도소에 있으니 제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이 여자로선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 제게 '사랑한다'라고 편지도 써주고 '고생한다'라고 위로도 해주며 제 걱정을 해주는 모습에 아이러니하게도 전 지금 행복합니다. 출소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고, 저도 간절히 원하지만, 달식씨와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을 느낀 건 철창 안 한평 남짓한 면회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부쩍 커가고 있는 진한이와 제겐 생계에 대한 염려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인데다 오랫동안 일을 못한 여파 때문이겠지요.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이라 제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 자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달식씨가 전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야."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전 아직도 깨우치고 있지 못해 부끄럽지만 그걸 깨우치고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멋진 신랑을 두어서 행복합니다.

# 철거민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철거민 입니다.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후원회 동지 분들이 보내준 소식지와 기금을 받고 곧바로 편지를 띄우려 했으나, 재판을 통해 일찍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루던 것이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동지분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1심만 마치면 나가서 인사를 드릴려고 했었던 제 마음이 그동안 노정권에 대한 조금의 기대를 가진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느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출범했던 노무현 정권도, 투쟁하는 민중들에겐, 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 갈수록 민중들에 대한 탄압 정책은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니… 정권의 간교함에 그저 치만 떨릴 뿐입니다.

투쟁하는 민중들에 대해선 간접 살인 행위도 서슴치 않는 그들이 미국 놈들 대하는 태도는 왜 이리도 360도 다른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나라가 자주적인 나라인가가 의심스러워 지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침략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기에 또다시 수 많은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고서도 반성은 커녕 제2의 종속국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침략전쟁에 파병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이 좋아 요청이지 미국에서 내미는 규모, 성격대로 보내라는 협박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들을 안 밟으면 안되겠기에 조사단도 보내고 여러 사람들과 면담도 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여지껏 국민들을 기만해왔던 노정권이 요즘 내뱉는 말이 혼성부대까지 나오며 제국주의에 대한 굴종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겐 가리려고 온갖 짓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것이 주권사수를 외치려던 청년학생동지들을 악법의 철퇴로 휘둘렀던 노정권의 본모습일 것입니다.

면회오는 동지들을 통해 철거민들에 대한 살인적인 만행들에 항의조차 하질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무차별적인 구속이 자행 되었고, 12명(현재)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이며 이는 역대 최고의 구속자 수입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구속, 수배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철거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던 노동자분들도 열사정신을 계승하며 투쟁코자 하는 청년학생동지들도, 이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그러나 위축됨 없는 자세를 사수하며, 인간다운 세상이 건설되는 그날까지 힘있는 투쟁 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날씨도 춥고 정권의 탄압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철거민들의 투쟁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참! 이곳에 지난 5월 22일 구속된 4명의 철거민들, 구청 앞 화단의 꽃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하는 기가 막힌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 분투 -

공안탄압 분쇄 열사투쟁 승리 !!!

2003년 11월 11일

영등포에서 장석원(수번 3418) 드림

# 핵발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양이원영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부장

## 핵에너지의 근원적 위험

핵에너지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의 핵을 분열시켜 얻는 에너지이다. 이 때 나온 중성자에 의해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연쇄반응의 정도에 따라 핵폭탄과 핵발전으로 나뉜다. '평화적 이용' 이라는 미화된 어구와는 달리 핵발전은 핵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출생의 역사에 걸맞게 저항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인 핵분열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발생한다.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색도 없고, 맛도 없어서 방사선 계측기가 없으면 존재를 알 수 없지만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사선이라는 독성을 지니고 있다.

방사성물질이 내뿜는 방사선을 인간이 쬐면(피폭당하면) 즉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우리 몸 여러 장기(뼈, 폐, 생식기, 근육 등)에 남아 있으면서, 후대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방사선의 독성이 단지 반으로만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 십 초에서 수 억 년이다. 플루토늄 239의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24,000년인데 중금속인 납으로 되기까지 수 억 년이 걸린다.

## 죽음의 재 고준위 핵폐기물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그 독성이 줄어들 때까지 생활권으로부터 격리하는 물질이다.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및 저준위로 분류한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방사선에 오염된 물품(작업복, 장갑, 슬러지, 폐액 등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방사능오염 폐기물)인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폐기물로 나뉜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붕괴가 계속되고 있어서 30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방사성물질 덩어리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 처음 장착되기 전인 핵연료보다 무려 백만 배나 강한 독성의 방사성물질로 변하는데, 핵분열성물질인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등 수백종의 다양한 핵물질이 가득하다. 일부국가에서는 이를 재처리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다시 핵발전소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고준위,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재처리 시설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된다. 핵발전소에서 일년간 배출하는 방사성물질을 재처리공장은 단 하루에 배출할 정도이다. 또한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기 때문에 재처리 추진은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므로 대부분의 나라는 중도 포기하거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 지하 연료풀 물 속에서 식히고 있다. 20~30년간 식히고 나도 100도가 넘기 때문에 냉각을 하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는 방식을 쓰는데, 이 경우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고 드럼통이 부식이 일어나서 방사성물질이 보관용기를 빠져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으로 누출되기도 한다.

선진국의 핵폐기장은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인 60~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폐쇄되거나 용량이 포화되면서 90년대에 새로이 핵폐기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대로 건설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누출사고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미국의 반웰, 뉴욕주 웨스터벨리, 멕시플랫핵폐기장, 남아공 발부츠핵폐기장, 대만의 란위섬 핵폐기장 등으로 일부에서는 인

근 지역주민의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율, 유산율이 높아졌다.

## 부안 위도면에 계획된 핵폐기장의 실제 용도

현재 산자부는 중·저준위핵폐기물처리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소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재처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위도에 중간저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기면서 재처리를 할 수도 없음에도 재처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이 필요한데 2001년 OECD 국가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 있는 우라늄 매장량이 현재 전세계 핵발전소 430여기가 사용할 경우 30~50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결국 핵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뽑아 내는 재처리를 하고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고속증식로(액체금속로)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핵발전소를 영원히 가동하려는 계획이 핵산업계의 지상과제가 된다. 하지만 고속증식로의 냉각수가 공기와 닿으면 불이 나는 액체나트륨이라서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 먼저 시작한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포기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과기부는 재처리 관련 기술과 고속증식로 개발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핵산업계는 사용후핵연료로 반감기를 줄이는 연구인 핵변환 연구도 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감기가 수천만년 하는 장반감기 방사성 물질과 단반감기 방사성물질을 분리하는 재처리 시설도 있어야하고 핵변환을 일으키는 핵변환 원자로와 양성자를 가속해서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양성자 가속기도 있어야 한다. 과기부가 현재 추진하는 100MeV 짜리 양성자 가속기를 확장해서 1GeV 짜리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부안은 위도 핵폐기장을 중심으로 재처리, 고속증식로, 핵변환 원자로,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며 핵단지가 될 것이다. 이는 영국의 셀라필드와 최근 일본의 로카쇼무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결국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다. 중저준위 핵폐기장 영구저장시설도 17년간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받아들일 지역은 없다. 결국 중간저장시설이 고준위 핵폐기장이 되는 것이다.

## 2008년 핵폐기물 포화설의 진실

산자부와 한수원은 각 발전소 별로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저장고가 2008년이면 모두 포화되고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에 포화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무시하든, 금권을 동원하든, 무리를 해서라도 핵폐기장이 건설해야한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1996년~2000년까지 핵폐기물이 포화되어 1995년에 당장 핵폐기장을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굴업도 핵폐기장이 취소되자 압축기술 개발로 13~15년간 문제없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유리고형화 기술로 1/20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2000년 핵폐기장을 다시 추진하면서 2008년이면 울진부터 핵폐기물이 포화되니 핵폐기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매년 발간하는 2003년 원자력발전백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상용할 유리고형화 기술 말고도 영광, 고리에 이미 시행하고 월성에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 울진에도 적용할 초고압 압축기술에 의하면 울진 중저준위 임시 보관소 2008년 포화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핵폐기물 압축과 앞으로 발생할 핵폐기물을 압축하면 2023년까지 문제없으며 부피를 1/5까지 줄이는 유리고형화 기술을 2007년에 상용화하면 2197년까지도 문제없다는 결과 나온다.

고리 핵발전소의 경우 '86년 이후 4기로 울진과 월성과 가동 기수는 동일한데 1992년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용량이 27,200드럼이던 것을 50,200드럼으로

저장용량을 확충했다. 이에 비해 월성과 울진의 경우 각각 9,000드럼과 17,400드럼에 불과하다. 고리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라 한수원이 고리 저장고의 용량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한수원의 필요에 따라서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으면서 울진핵발전소는 2008년에 포화된다고 핵폐기장 시급히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해서라도 핵폐기장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핵발전 말고는 과연 대안이 없을까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나 핵폐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관련 정보는 왜곡되고 미화된다. 핵에너지는 자연과 인간에 위협적일 뿐 아니라 정보 공개와 민주주의를 쉽게 무시한다. 과연 핵에너지는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악인가?

사실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루에 태양이 뜨고 지면서 무수한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다. 태양은 바람으로, 열로, 광선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으며 인류는 그리 복잡하고 위험하지 않은 기술로 쓰레기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실용화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50~60년대의 신화를 뒤로 하고 사라져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지구 어디에든 존재한다. 에너지밀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지만 이것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는 중앙집중식 거대 구조가 아니라 작은 단위가 서로 연결되는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축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의지가 뒤받침될 경우 2050년이면 전체 에너지의 95%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에너지시나리오를 제시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풍력 잠재량이 현 전기 소비량의 3배이고 당장의 기술로 가능한 5%만 개발해도 전기 소비량의 14%를 담당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핵발전이 가장 비싸다고 판명났다.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전력구조는 기술과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판단과 시민 선택의 문제다.

한국의 전력사용은 우선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한다. 1인당 전력소비가 일본, 영국, 독일을 벌써부터 앞지르고 있다. GDP대비로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 셈이다.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 낭비적인 생산구조를 바꾸는데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의 1/10도 들지 않는다. 사실, 이제 추가 핵발전소 건설은 필요하지 않는 셈이다. 선진국들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 외에 추가 발전소 건설은 포기했다. 가동 중인 것도 수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거쳐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가고 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4기와 월성 1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전체 전력생산량은 4,700만kW로 현재 전력수요 약 4,000만kW를 담당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었다.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왔기 때문에 전력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고집하는 것은 전력공급 주장 뒤에 가려진 발전소 1기의 하루 가동에 벌어들이는 10억 이익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알립니다**

"北漢山에 오르자!"

2004년이 밝아 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 지기를 빕니다.
새 해 새 희망의 첫걸음을 북한산 산행으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 제** 2004년 1월 18일 10시
**모이는 곳** 평창동 북악파크호텔 앞
**갖출 것** 회비 3,000원, 도시락, 두터운 옷

양심수로 구속되었던 포항화물연대 출소자들이 500,000원을 양심수를 위해 써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반도 평화의 전망-북핵문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 편집자주 ] 이번 달부터 2004년 1년 동안 다가오는통일이란 슬로건 아래 '통일' 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2월 중순 2차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차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 수립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북미 공방을 평가해 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한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이래 1년이 넘는 기간 진행된 북미 공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북은 한편으로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안전보장과 핵 포기를 맞바꾸는 일괄타결 형식의 해결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북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의 입장이 나름대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반면 미국의 입장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실제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콜린 파월-아미티지-켈리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외교적 협상을 중시하는 국무부 라인인 반면, 체니-럼스펠드 등의 행정부 보수 강경파(흔히 네오 콘 또는 신보수주의자라 한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실제 대화에는 참여하면서도 의미있는 협상안은 제출하지 못했다.

## 미국내 강경파 입지 흔들

200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내의 정치적 역관계가 변화하였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악의 축으로 지칭했던 이라크 · 북 · 이란은 보수 강경파의 전략에 따르면 하나의 전략 구상에 묶여 있었다. 보수 강경파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 점령, 이란 · 사우디 · 시리아 등에서의 정권교체, 북의 와해 등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 강경파의 정책은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북에 대한 압박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보수 강경파의 입지는 위축되었고 내년 11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부시로써는 이라크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북에서 제 2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미국내의 이러한 역관계를 배경으로 10월 아펙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에 대한 다자간 서면 안전보장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선 핵포기만을 주장했던 미국의 강경 입장이 선회하면서 2차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간 입장은 대체로 드러났다. 북은 미국이 북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약속이 없으면 실제 핵을 개발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던 이라크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조차 무시하면서 군사적 공격을 가한 미국의 존재는 북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북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의 내용은 불가침, 북미 · 북일 수교,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말 것 등인데 이 중 불가침의 경우에는 미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약의 형태이기 보다는 북미 양자 협상에 의한 서면 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가침조약은 미국의 백지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북의 입장에서도 북미.북일 수교 등이 이루어지면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북에 대한 안전보장은 확보된다고 보는 것 같다. 2차 회담에서 북이 중시하는 것은 동시행동 조치이다. 동시행동 조치란 북미 쌍방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놓고 동시에 행동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장했던 선 핵 포기와는 다른 주장이다. 사실 국제 정치에서 일방적인 선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이전의 세차례

회담(2002년 10월 켈리 방북, 2003년 4월 북경 3자회담, 8월 북경 6자회담)이 대화가 진행되면서도 실제 의미있는 대화는 없었던 반면 12월의 2차 6자회담은 나름대로 북미 쌍방이 협상안을 가지고 각축하는 양상을 띨 것이다. 부시의 다자간 서면안전보장안과 북이 주장하는 미국이 담보하는 안전보장안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동시행동 조치는 미국이 북과의 정치군사적 상황 악화를 각오하지 않는 한 무작정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 2004년 미국 대선이 변수

북미 공방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북미간의 역관계이다. 북은 부시 행정부의 일정한 정책 전환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담한 해결책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11월 대선 이후 미국 내부의 정치적 역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반면 미국의 행보는 보수 강경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가 정세를 좌우할 것이다. 이라크 전황 악화가 보수 강경파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황,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 여부, 미 대통령 선거전의 향방 등이 주요 변수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12월 6자회담부터는 나름대로 협상과 타협이라는 대화의 궤도 위에 들어 섰다. 문제는 이 협상국면이 정치적 대타협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내년 11월 대선 이전에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미 쌍방이 상호 관심사를 모두 꺼내놓고 이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북의 안전보장 요구와 미국의 핵포기 요구를 맞바꾸는 형식이 될 것이다. 북의 경우에는 미 대선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보수 강경파의 입지가 약화된 시점에서 상황을 전격 타결하려 할 것이고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간 부시로써는 대치와 대결의 장기화는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황이 미 대통령 선거전 이후로 연장된다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것이다. 북미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존망을 두고 각축했다. 특히 북은 탈냉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획득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핵심기조였다. 북미간에 형성된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치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주변 질서를 구획했던 기본 선이다. 따라서 북미 공방이 해소되면 연쇄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비약적인 발전, 북일 수교,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본격화 등이 그것이다. 한반도 역사를 좌우할 대변화가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2004년은 통일정세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 첫눈 오는 날

모성룡 회원

첫눈이 오면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유치원 차가 늦으면 늦을 수록 눈을 뭉치며, 던지며, 비비며 장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말이죠.

첫눈이 오면 감상적인 일부 어른들은 조용히 소원을 빌죠. 이런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이런 일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저는 첫눈 오는 날 회원게시판을 보며 이런 소원을 빌어 봅니다.

-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김혜정 간사님 힘내세요. 모든 회원님들도요.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님 힘내세요!
  여러가지 마음 상할 일들로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참 힘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더욱 힘내세요.
- 우리 회원님들 더욱 열심히 힘냅시다.

안해가 "눈이오면 강아지는 발바닥이 차가와서 폴짝폴짝 뛰나?" 하고 묻습니다.

"글쎄 눈썰매 끄는 개는 그래서 잘 달리나?" 하고 대답합니다.

첫눈 오는 날. 남들 들으면 우습지도 않은 썰렁한 대화로도 뭐가 좋은지 둘이 얼굴 바라보며 하하호호거리는 날을 김혜정 간사님 가정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눈 오는 날, 힘차게 외쳐 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후원회 화이팅~~~

▶ 이 글은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려졌던 글입니다.

#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김도균 회원, 「민중의소리」 기자

11월 마지막 날. 남산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걷기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아침을 늦게 먹고 밖으로 나섰다. 전날 야근을 한다고 사무실에서 잤더니 몸이 찌푸둥했다. 그러고 보니 카메라 없이 행사에 가본 지도 꽤나 오래된 것 같다.

권오헌 회장님을 만나 뵙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금 늦었다.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 지하도 안에서 한참을 헤매고 길을 물어물어 국립극장까지 갈 수 있었다.

서울에 살면서도 남산에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한두번 뿐이었던 것 같다. 후원회 정기산행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가보지 못하고 있다. 조금 신경쓰고 의식적으로 참여해도 될 것을.

남산에서 오랜만에 후원회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전 결혼한 승미 누님이 먼저 보였고 모지희님도 뵙고-작년 시사강좌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처음 뵌 분들도 계셨는데. 그 중 한분이 새 간사인 김혜정님이었다. 오후에 약속이 있어 일찍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주위의 권유로 걷기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남산을 걸어볼까.

낮 12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2003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걷기대회'가 시작되었다. 통일광장 선생님들도 와 계셨고 한청회원들도 보였고 한총련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의 부인과 아들의 모습도 보였다. 송교수의 가족은 남산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참가자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남산 국립극장에서 남산 옛 안기부터까지 약 2시간 동안 걸은 후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선포대회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집회 막바지에 '국가보안법'을 찢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민경우 사무처장도 함께 있었다. 이날 대회를 함께 준비했던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그 다음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된다.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12월 1일 오후 3시 50분 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본청에서 나온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또 10여명의 보안수사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서울 방배동에 있는 민 사무처장님의 가택을 수색해 '이적 표현물로 의심되는 것들'을 압수해 갔다.

현장의 감흥이 다 사라지고 난 지금 뒤늦게 후기를 쓰고 있다. 후기를 쓰다 떠오르는 몇몇의 얼굴들이 있다. 연행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양심수후원회 간사활동을 시작하신 김혜정님이다. 한 언론에서는 '국가보안법 55년 기념'으로 민경우 처장님이 연행되었다고 썼었는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친 사람이 다음날 공안당국에 연행되는 현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송두율 교수가 구속되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민경우 사무처장의 연행과 구속이 있었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개월 사이 16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연행됐다. 12월에도 군복무중인 아주대 학생들에 대한 연행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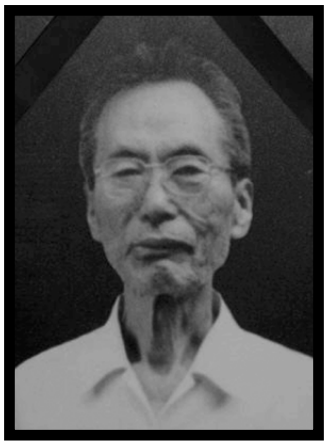
55년째 접어드는 국가보안법. 올해 초 양심수석방과 정치수해해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누구보다 그들 가족의 고통이 컸었다. 주위 동지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기에 대통령사면도 수배해제에 대한 일정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랬었다. 하지만 더 이상 국가보안법과 함께 설 자리가 없어진 수구공안세력들은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억지인 것이다. 누구나 통일을 이야기 하고 남과 북이 왕래하고 관광을 하고 유적답사를 하는 이 마당에 민간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가.

하루속히 민경우 사무처장의 석방이 이뤄지길 바란다.

# 다시는 뵈올 수 없게된 그 인자하신 모습

## – 송환 비전향장기수 김종호선생님 부음소식을 듣고 –

권오헌 본회 회장



조국통일 염원을 안고 모진 삶을 살아오셨던 또 한분의 송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슬픈 소식은 이북의 조선중앙통신부고를 통해 남녘에 알려졌습니다. '남조선 감옥에서 당한 모진 고문에 의해 전신 다장기부전으로 주체92(2003)년 11월1일 1시30분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하였다' 고 남쪽통신들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우시면서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셨던 선생님!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셨고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철칙을 실천해 오셨던 선생님께서도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쌓인 연륜을 이기지는 못하셨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평생의 염원. 어찌 잊고 홀연히 가셨는지 슬픈 마음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염원 가운데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감옥을 사시면서 모진 고난을 겪으셨지만 한결같이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셨기에 선생님께서는 2000년 9월2일 마침내 신념의 고향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남녘의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의 높은 덕목과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한 인간적 정으로 차마 보내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분단의 아픈 상처를 아우르는데 꼭 가셔야할 길이었기에 아쉬움 삭이며 다시 만날 일을 약속하고 환송해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었던지 비전향장기수 송환 40여일 만에 평양에서 선생님을 다시 뵈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창건 55돐 경축〉에 참관자로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녘에 계시는 동안 한때 오랜 옥고와 중풍후유증으로 평형감각이 없어 바로 서 계실 수 없었고 시력도 좋지 않았으며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모두 만나시어 세상 부러움 없이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8.15민족통일대축전 때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의 개막식에도 오시어 혼자 걸으실 수 있고 눈 수술도 받았으며 시를 쓰면서 보람있는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선생님을 뵈온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1916년 8월2일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에서 태어나시어 김천고등보통학교를 나오셨고 곧바로 금융조합 서기시험에 합격하시어 3년간 직장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 동북지방으로 가셨고 '흥농합작사' 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광복을 맞아 1945년 함경북도 청진으로 나오셨고 곧바로 제철기계공업사의 경리과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뒤 나남 · 청진 소비조합에서 일하시면서 성실성과 책임성이 인정되어 함경북도 소비조합 기획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전쟁시기에도 선생님은 평양으로 오시어 조선소비조합 중앙위원회 기획부장에 오를 정도로 선생님의 소비조합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은 완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분단을 언제까지 못본 체 할 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57년 조국통일사업을 위해 남녘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대구지방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운동을 하시다가 1961년 5월 25일 체포되어 군사정권의 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사형언도를 받았고 이어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 확정

을 받았습니다. 그 뒤 선생님께서는 대구, 서울, 목포, 대구, 대전형무소(교도소) 등으로 옮겨 갇혀사셨고 특히 1973년부터 강화된 사상전향공작 때는 모진 고문으로 삶과 죽음의 가름 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과 정치적 신념은 어떠한 고문으로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1991년 5.25일 마침내 선생님은 비전향장기수로는(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에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는 예외로) 처음으로 노약자, 병약자라는 이름으로 허영철 선생님과 함께 출소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갈 곳이 없어 여관 등에 계셨지만 비전향장기수를 감시하던 공안당국은 안정적 감시와 통제를 위해 꽃동네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차라리 감옥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때 김형준 목사님의 주선으로 덕유산 자락 소망양로원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양로원 측과 군청에서 어떻게 '비전향 빨갱이'를 자기소관에 둘 수있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화여대 후원팀'에서는 선생님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양로원 측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알리고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뒤 선생님은 폐렴이 심해져 대구 가톨릭병원에 입원하셨고 대구, 경북 양심수 후원회 한기명, 최찬, 박창숙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정성어린 간병을 받기도 했습니다. 퇴원하여 다시 소망양로원으로 가실 수 밖에 없었으나 박창숙 회원이 선선히 방을 하나 내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 1999년 3월31일 비전향장기수 17명이 석방되면서 대구, 경북 양심수 후원회에서는 '민들레집'을 마련했고 교도소에서부터 남다르게 선생님을 돌보아 주셨던 김창원(2000.9.2 송환)선생님이 선생님과 함께 사시면서 정성으로 도와드리고 계셨습니다.

五葉松辺老鍾坐　六月炎天淸風來
林間鶯聲活氣新　僻居千里遠慕友

김종호 선생님이 소망양로원에 계실 때 필자에게 보내준 한시(漢詩)였습니다. '짙은 솔밭 그아래 늙은 몸 앉아있네. 한여름 불볕더위에서도 바람 시원히 불어오고 울창한 숲 속 어딘가에서 꾀꼬리 소리 요란한데 외롭게 혼자 있자니 멀리 동지들이 그리워지네'.

어찌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감옥에서 동지들과 함께하던 시간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양로원에서 좀 떨어진 솔밭 그늘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한번 찾아 뵙고 떠나 올려면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시던 모습. 구름 몇 점이 떠가고 있는 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동지들을 그리워 하셨고 더 멀리 북녘 하늘을 보시면서 두고 오신 부인 김경옥님과 아드님 김학수님을 그리고 계셨을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의 한가지 소망은 이루어져 신념의 고향으로 가셨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평생의 염원 통일조국 그날을 보시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더 큰 소망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음 편안히 고이 잠드시길 빌겠습니다.

2003. 11. 25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 새 일꾼을 소개합니다

양심수 후원회에 새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혜정이구요, 나이는 비밀(?)입니다.

맡아 하는 일은 상근 간사입니다.

관악청년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에서 활동을 하였고, 이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이기도 하지요.

간사가 되자 마자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아들 준홍이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근자' 라는 직업

박정범 편집위원

나의 일터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운동권 단체였다. 이른바 '상근자' 였다. 상근자는 '운동' 이 직업이다.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에 민족민주운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상근자라는 직업 분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반인들은 운동단체에서 상근하는 '상근자' 라는 직업에 생소해 한다. 조금 이 바닥의 생리는 안다는 사람들은 '백수' 또는 '정치 지망생' 들이 잠시 거쳐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게 바로 생존의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이를 하지 못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다.

특히 시집 장가 안간 처녀 총각들이 양가 상견례 등을 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참 난감하다. 더불어 어떻게 가정을 꾸려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 진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양심과 신념,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묵묵히 단체 등에서 상근하는 동지들이 많다. 노동현장에도, 농촌현장에도, 전국단체,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운동을 '業' 으로 알고 살아가는 동지들이 있기에 민족민주운동의 명맥이 의연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후원회에도 이번에 새로운 상근자가 생겼다. 듬직한 여성동지다. 처음 전화 통화를 하고, 몇 번 소식지 만드는 일을 하는 동안 자잘한 일을 같이 하면서 접해보니 참 성실하고, 우리 후원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 후원회의 상근자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안정적인 일터라는 개념을 갖고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동지애적인 연대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대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무튼 지금 나는 예전의 직업을 버리고 '상근자' 를 동경하고 그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지원해 주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가끔씩 자본의 톱니바퀴에 얽매어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볼 때 한없는 측은함을 느끼기도 한다. 단순간에 뿌리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가끔씩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절망적인 뉴스를 접할 때 마다 그 도가 더 심해진다.

한번 지치고 힘들 때는 집에 있는 마누라와 아이들을 떠올리고, 또 한번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간 열사와 동지들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간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우리가 꾸었던 그리고 꾸고 있는 꿈만은 버리지 말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 나가자는 처음의 결의 그대로 나는 오늘도 '생존' 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 편집위원 모집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한 글쓰기를
같이 하실 동지를 기다립니다.

yangsimsu@naver.com

# 노무현의 '하여가'

경향신문 12월 5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 2003년 11월

0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남산 옛 안기부터 역사보존 및 인권공원 추진위원회 주최로 의문사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추모기념 옛 안기부터 보존 및 인권공원 추진을 위한 해원(解寃)문화제가 열리다.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이승미회원이 신랑이 재필님을 맞아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양가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을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총련은 11 · 1광주학생의거 74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고려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30여대학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족자주정신계승대회를 열다.

서울역광장에서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이라크파병저지, 노무현정부 규탄대회를 열다. 노동자 · 농민 · 청년학생 등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광훈 민중연대상임대표의 여는 말, 우대식 한총련대변인과 전국학생연대회의 주향미의장이 함께 읽은 결의문을 채택하다. 참가자들은 '노무현정권 집권 8개월만에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열사가 8명이나 된다' 며 자본과 권력이 공모한 살인행위라고 규탄하다.

02 한민족유럽연대, 조국통일해외기독자협의회 등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사회단체는 '송두율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원회' 를 구성했다고 밝힘. 대책위는 송교수가 기소되면 유럽의회에 국가보안법문제를 상정할 방침이라고 하다.

03 낙성대 '만남의집' 에 봉천자활센터에서 봉사원이 파견되어 이달부터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봉천자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는 '이시하라도쿄도지사의 조선식민지 지배미화 망언규탄집회' 를 열다. 집회에서는 이시하라의 망언철회와 사죄를 촉구했고, 이시하라의 모든 공직박탈, 입국금지조치,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관련문서 즉각공개를 요구하다.

04 서울역광장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철회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의 여는말, 권오헌 대표의 성명서 낭독 등으로 진행된 뒤 대표들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다.

장안동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범청학련, 범민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실천연대등이 범청학련 김광수씨 불법강제연행 규탄긴급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대표의 규탄발언 나창순범남본 의장의 성명서 낭독등이 있었음.

05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천주교인권위, 학단협,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한국정치연구회 등 공동으로 '전향과 인권-송두율교수사건과 전향의 법, 사회학' 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다. 토론회에서는 전향제도,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의 사생아(최정기전남대사회학과 교수), 송두율교수관련 신문보도 분석(김은주-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장), 전향과 인권(박연철변호사) 등 발제가 있었고 이상영(방송대), 이정희(변호사),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박찬운(변호사), 서해성(소설가) 등이 토론에 참석하다. 토론을 마치고 독일에서 온 뮌스터대 사회학교수 크리스만스키 교수의 소감발표도 있었음.

양심수후원회가 정순덕선생님 간병비와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의뢰를 한 것에 모금회에서 지원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신청서식등 보내오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학대학원과 한국언론재단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를 열다. 학술대회에서 도날드그래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황장엽씨가 말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북한인권과 관련시켜야한다' 고 말한 것에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다.

대한변협의 송두율교수변호권침해 진상조사단장 박찬운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송교수 조사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있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06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는 '이라크파병반대농성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10일간의 철야농성에 들어가다

정순덕선생님 간병비지원요청과 관련 인천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정선생님 문병하고 주민등록증을 떼오다. 또한 이강일 원장님 찾아 뵙고 입원치료에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다.

민가협 495회 목요집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제정 반대 내용으로 진행되다.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측 이병웅 수석대표, 북측 최성익단장) 모두 11개항으로된 고성군 온정리에 3000평 크기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안에 완공키로 합의하다.

세실레스토랑에서 송두율교수 무죄 석방과 학문 · 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 주최로 독일 뮌스터대학 크리스만스키 교수의 기자회견이 있었음. 크리스만스키교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송교수를 석방하고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유럽대책위원회 성명서를 소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뮌스터대학 교수들의 공개서한을 발표하다.

서울역광장에서 노동현실을 우려하는 교수 222명의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교수선언' 이 있었고 보건의료단체도 '현정부 노동정책 비판하는 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회견에서는 손

배 · 가압류금지, 비정규직차별철폐, 노동운동탄압중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다.

07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권오헌 상임대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무국장 인준등 인사문제와 의문사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다.

서총련의장이며 고려대학교총학생회 박재익회장이 이라크파병반대 서총련단식단을 이끌며 17일 단식을 하고 있어 격려방문하다.(오종렬,권오헌)

서울경찰청앞에서 국민대학교총학생회와 사회단체대표들이 '한총련이적규정철회와 조현실 학우 치료보장을 위한 서울경찰청장 면담기자회견을 열다. 국민대 부총학생회장 사회로 조현실총학생회장의 파병반대농성과 난소종양진단 수술치료의 긴급성등 경과보고,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이적규정철회 수배해제, 치료보장 촉구 발언. 이덕우변호사의 한총련탄압중단촉구발언,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오종렬, 조운덕, 이덕우, 권오헌 대표와 국민대부총학생회장, 이성규 보안1과장 만나 한총련이적규정과 체포영장철회, 치료보장 등을 촉구하다.

서울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인권단체 평화권포럼과 성공회대 평화센터 주최로 '이라크전과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공개토론회를 열다. 토론회에서 미국국제행동센터소속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러스는 '이라크전쟁이 성공하면 다음 전쟁은 한반도가 될것'이라며 한국민중은 부시의 파병요청을 거부해야한다고 역설.

아시아지역 노조연대 대표 24명은 영등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중단과 손배.가압류폐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수감중인 노동자 석방, 노동자의 평화적 시위보장 등 주장하다.

08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노동자 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3년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열다.

양심수후원회는 8일-9일 1박2일로 2003회원역사기행을 '순창, 담양지역 빨치산 전적지와 정읍지역 갑오농민전쟁 역사유적지를 답사했음. 서울과 수도권, 충남, 전북, 경북지역에서 모두 60여명이 함께하여 8일밤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의 전북지역 빨치산 활동 등 체험담을 듣고 이어 전북, 순창군농민회 김광호 부회장의 오늘의 농민 · 농업 농촌문제 사례를 들었음. 이어 농민회에서 준비해온 돼지고기와 막걸리로 흥겨운 뒤풀이와 대화시간을 가졌음. 9일 오전 7시~8시30분까지 회문산 빨치산 사령부등 재현해 놓은 전적지, 유적지를 답사하며 임방규선생님 설명을 들었고 아침식사를 한 다음 전남 담양의 전남도당사령부터, 가마골로 이동. 용소, 도당사령관, 동굴, 출렁다리, 계곡 등 답사. 다시 간부학교, 도당학교터를 답사하고 임방규선생님 설명을 듣다. 다음 간 곳은 쌍치, 돌고개 전적지답사 - 이곳은 지역주민과 유격대원이 군과 경찰등 이른바 토벌대를 대패시킨곳으로 유명한 곳. 당시 토벌대의 진지, 참호, 교통호등 남아있음. 이곳에서 전투를 했던 임방규, 이학천선생님 증언 듣다. 답사를 모두 마치고 쌍치 성은식당에서 호남특유의 맛을 자랑하는 푸짐한 점심식사 - 3시10분 쌍치를 떠나 정읍으로- 내장산 가기는 시간이 모자라 포기-갑오농민전쟁의 전적지 황토현답사, 권오헌의 설명. 이어 기념촬영과 기행종합평가 있었음(문일승, 신원수, 손일순, 변숙현). 답사 모두마치고 서울로 떠남. 10시 50분 서울 도착, 모든 행사 마침(역사기행참조)

09 시청앞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5만여 노동자 청년학생이 모인가운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3전국노동자대회' 열리다. 단병호위원장의 대회사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격려사 정현백여성단체연합대표의 이라크파병 반대 연설. 권영길민주노동당대표의 연대사 등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차별철폐, 손배 · 가압류 철회, 국민연금개악저지, 노동탄압분쇄 파병반대, WTO반대 등을 촉구했음. - 노동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종각 등으로 행진했으나 경찰의 폭력과잉저지로 충돌, 화염병으로 대응하다. 밤 8시 명동성당에 집결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이날 경찰의 폭력으로 노동자 100여명이 부상당하고(56명 중상) 111명의 노동자가 강제연행 당하다.

10 서울경찰청앞에서 서울대 사범대 이주희 학생 강제연행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다. 이주희학생은 지난 8일 연행되어 이날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다. 서울대생 사회로 경과보고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조순덕 민가협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미 대사관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주최로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다. 마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낙성대 만남의 집에 서울대 수학과 학생2명이 와서 정순택 선생님의 살아온 이야기듣고 차례로 낙성대 선생님들 취재하겠다고 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조사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송두율교수 면회하다. 송두율교수는 아직도 검찰조사를 받고있는데 학자적 양심과 민족적 양심상 부끄럽지않게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였음 - 이날 면회는 송교수 부인 정정희 여사님과 아드님, 손영원 교수와 권오헌이 함께 했음. -이날부터 송교수수갑, 포승 풀었음.

# 2003년 11월

11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평통사등 공동으로 50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문정현신부의 여는말, 강정구교수의 파병반대발언 등에 이어 부시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 -항의서한에서는 주한미군역할변경 거부, 용산미군지기이전협상 중단, 이라크파병 반대, 럼스펠드방한 반대 등 주장. 마지막에 럼스펠드 대형사진화형식을 갖다.

- 경찰청앞에서 손배 · 가압류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대표의 여는말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의 규탄발언 오종렬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양심수후원회의 오랜 회원으로 큰성원을 해오셨던 부산에 사시는 윤경섭선생님께서 앓아오시던 위암으로 이날 별세하셨습니다. 고 윤경섭님은 양심수후원회 10차총회 때 감사패를 받는 등 후원회에 큰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13일에 발인 부산 기장묘원에 모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경찰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등 지도부 6명에 대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9일 연행된 113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12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긴급간담회를 열고 11기 한총련 이적단체 임의규정 대응과 집행부 보완문제 등 논의(오종렬, 권오헌, 정진우, 최현지, 윤경회 등).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서총련과 사회단체가 함께 하여 박재익 서총련의장 조모님의 안전조문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대표의 국가보안법폐지 이적규정철회, 정치수배해제발언과 박재익 서총련의장의 조모님 조문보장 발언,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지부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이보다 앞서 권오헌 대표는 서울경찰청, 보안과장에 전화걸어 박재익의장의 조모님 조문보장을 촉구했음.
- 민주노총은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8개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까지 거리행진을 하다.

13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등 인권, 종교, 학술, 사회 등 10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 ·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갖다. 함세웅신부의 인사말, 김성복목사의 경과보고, 임기란 민가협전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의 석방촉구발언, 신정완교수의 활동계획발표, 송교수부인인 정정희여사님의 호소글 낭독, 김수행교수의 발족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송두율교수의 즉각석방, 전향강요에 대한 사과등을 촉구했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가협 496회 목요집회를 테러방지법제정반대 내용으로 테러방지법반대 국민행동 단체들과 함께하다. 권오헌공동의장의 여는말로 집회를 줄여 끝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테러방지법 반대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김덕규, 함승희, 정형근 의원 등 정보위 의원 사무실을 방문 반대의사를 전달하다.
- 청와대 부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연합, 민변, 문화연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빈부격차해소, 차별금지, 주택의료교육시민생활안정 등 사회통합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다.
- 이라크파병 비상국민행동은 국방부앞에서 전투병파병 선동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한상렬, 박순성대표의 규탄발언과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14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한총련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와 11기 한총련이 공동으로 '11기 한총련 이적단체 임의규정 및 폭력적인 한총련 대의원 강제연행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정진우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상임대표의 이적규정철회 수배해제촉구 여는말 경기대 최승재군 부친 최강복님의 한총련 탄압사례 발표,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의 한총련 농성단 보고 및 활동계획발표, 참여연대 대표의 이적규정규탄 발언, 오종렬 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검찰총장에 보내는 항의서한 대검민원실에 접수시킴.

- 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 심의를 반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의원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9명이 영등포(민경우, 박래군, 송상열, 임선순)경찰서와 방배(박성희, 이주영, 배경매, 김상영, 오영경)경찰서에 강제연행되다. 검찰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회단체 대표 방배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나누어 방문, 강제연행을 규탄하고 즉각석방 촉구하다. (방배경찰서-김정숙, 백주선어머니, 권오헌) 연행활동가들은 오후 5시 모두 풀려나다.
- 대전 기독교봉사관 2층 대강당에서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창립총회를 열다. 오랫동안 준비위원회로 활동하다가 정식 출범하게 되다. 1부 순서는 김한섭 집행위원장 사회로 민중의례 내빈소개 홍성순 전회장의 인사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축사 허찬형선생님의 격려말씀 후원회 활동 영상상영이 있었고 2부에서는 성광진 운영위원장 사회로(임시의장) 성원보고에 이어 상정안건으로 회칙제정안 임원선출안을 준비위원회 원안을 통과시킴. 대표인사와 결의문채택이 있었음. 공동대표로 안은찬, 문성호(대선 남성중학교 교

사)씨를 공동대표로 뽑다.

-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공동발의해 대테러 활동을 위한다며 국정원 권력강화를 내용으로 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통과되다.

15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등 주최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시민등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라크파병 반대 3차 범국민 행동의 날' 대중집회를 열다. 참여연대의 장유식 협동사무차장 사회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표명철예비역준장의 전쟁반대연설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의 파병반대연설, 황상익 교수노조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광화문 네거리 교보빌딩 앞까지 거리행진. 정리집회를 했고 저녁 7시부터 광화문 촛불집회로 이어졌음. 송창학, 주경임, 권오헌함께.

16 이른바 한 · 미35차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가하기위해 미국 럼스펠드국방장관 서울공항에 도착하는때를 맞춰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등 사회단체 대표 방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를 하다.

17 용산국방부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평택 · 평성대책위 등 공동으로 '파병압력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반대,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들은 이른바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진행되는동안 국방부앞에서 농성을 했으며 럼스펠드가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했을 때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계속 따라다니며 파병압력반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하다.

- 지난달 23일 세원테크장기파업사태해결과 노동탄압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하여 2-3도 화상을 입고 대구동신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던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이 분신25일만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이른바 35차 한 · 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 합의못하고 결렬되다. 한편 노무현대통령은 럼스펠드에게 3천명규모의 추가파병을 통보한 것으로 보도.

18 미대사관 앞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덕수궁터 지표조사 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압력을 자행하는 허바드 미대사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시민모임은 허바드 대사의 공개사과 신축계획 철회 등을 주장하고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다.

- 여중생범대위는 미대사관 앞에서 '자주평화 촛불행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을 열다.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회로 오종렬 상임동동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상임고문의 자주평화 1주년 기념사업계획과 촛불행진 참가지침 발표, 김준기 대표의 허바드 미대사에 보내는 공개서한, 문대골 대표의 노무현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요구서 등을 낭독하고 미대사관등에 전달하다.

- 오산 미공군기지 정문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평택 · 평성대책위는 '미군기지 평택총집결, 이라크파병강요, 럼스펠드방한 규탄대회' 를 열다.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에서 노무현정권의 사대매국적태도 규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합의 백지화, 용산미군기지 및 미2사단 평택이전 완전백지화, 한미연합사 전력증강 반대 등을주장하다.

- 송두율교수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는 베를린시민을 주축으로 한 각계인사 600여명이 노무현대통령과 한국국민에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 호소문의 서명에는 베를린자유대학의 알브레히트교수를 비롯하여 피셔변호사, 한스목사, 보쿰대학의 애거트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경찰청 정문앞에서 손배 · 가압류 노동탄압 분쇄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전국노동자대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구시대적 조작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의장의 취지말, 권오헌대표의 경찰폭력 · 표적수사 규탄발언, 정광훈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 회계보고, 12월 송년모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송두율교수 석방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 한총련 11기 이적단체 임의규정 대등 등 논의.

19 전국농민회총동맹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와 대학로 등에서 전국농민 10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우리농업사수, 쌀지키기,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대회' 를 열다.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과 한농연 수석 부위원장 사회로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서정의 한농연 회장과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정치연설 등이 있었고, 김인호 한여농회장의 투쟁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결의문에서는 WTO, DDA 농업협상반대, 쌀수입개방반대, 농가부채특별법제정,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등 촉구하다. 대회를 마치고 농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종로, 공덕동로타리 등으로 진출 거리행진을 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충돌이 잇달았고 많은 농민들이 중경상을 당했고 50여명 농민들이 강제연행되다.

-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 위반혐의로 구소기소하다.

- 국회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테러방지법반대 공동행동과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법안심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또한 이날 강경선 교수 등 헌법학자 18명은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입법반대 의견을 밝힘.

- 후원회소식 145호 최종교정 기획사로 넘김. 박정범, 여혜정 회원 애쓰셨습니다.

20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국민은행앞)에서 민가협 497회 목요집회를 테러방지법반대 국민행동과 함께 테러방지법반대 내용으로 진행되다.

- 서울지검 앞에서 평통사 주체로 '주한미군은 불처벌, 시민단체는 강경처벌 사법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강독극물 방류 등 환경범죄를 규탄한 김판태 SOFA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등 4명이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출두하여 집행과 유치장에 구금 5일간 구금되다.
-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14주년 기념식 및 제9회 인권상 시상식이 열리다. 1부 기념식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김창국 국가인권위 위원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전 해인사주지 도성스님의 격려사가 있었음. 2부 시상식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의장 방지하스님의 인권상 선정이유 설명, 진관스님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지도자에게 시상과 상패를 주고, 수상자의 인사말, 축하연주 등이 있었음.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145호 발송작업을 했습니다.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과 송창학, 주경임, 노혁, 고광희, 이용준, 김혜정, 권오헌 등 함께하다.

21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통일연대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공동으로 '부패본산 수구원조 한나라당 해체투쟁 선포식'을 열다. 한상렬 상임의장의 취지인사말, 강민조 유가협회장의 청산대상1호 한나라당에 대한 이유서 낭독,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청산대상2호 국가보안법 청산이유 낭독 등이 있었고, 상징의식으로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 파괴 퍼포먼스가 있었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육군현역 강철민 이병이 '이라크 파병반대 귀대거부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가다. 대구카톨릭대학 3학년인 강이병은 노무현 대통령에 드리는 파병반대 뜻을 전하는 편지글 낭독하다. 기자회견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와 파병반대 국민행동, 민가협, 민변 등 사회단체가 함께했음.

22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송환때 신념의 고향으로 가시어 가족을 만나 살고 계셨던 김종호 선생님이 2003년 11월 21일 1시 30분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북 조선중앙통신 부고를 남쪽 인터넷신문들이 보도하다.

- 여중생범대위 상황실 제종철 부실장이 21일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태와 관련 의정부 민주노동당 당사 회의실에서 여중생범대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다. 이날 있었던 부검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 장례절차 등 논의하다.
-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족통일학회의 월례 학술토론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서는 '민족통합과 체제수렴'이란 주제로 리영희 교수의 특강이 있었음. 리영희 교수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공허하게 하고 체제통합을 강요할 때는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23 인천 검단 천주교공원묘역의 고 이재문선생 묘소에서 '고 중덕 이재문선생 22주기 추도식이 유족과 남민전 관련 동지들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들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음. 권오헌 사회로 제주 첫잔 올리고, 추모의 노래, 약력소개(박석삼), 추도사 전사1(박광숙), 추도사(안재구, 박정기(유가협전회장), 김남주시인의 육성시낭송(마지막인사), 결의의 노래(우리의 소원은 통일),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정순택선생과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아우님이신 조용준 선생, 외부인사의 분향재배가 있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화환을 보내오기도 했음.

- 단국대 학생회관 대극장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3주년 기념대회와 문화공연이 있었음. 범민련성원과 사회단체 대표, 청년학생 등 4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범남본 나창순 의장의 대회사, 부경연합 서상권 의장의 북측본부 축사, 대경연합 한기명 의장의 해외본부 연대사, 한청 전상봉 의장의 공동사무국 연대사가 대독되었음. 이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강민조 유가협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박종화 시인의 축시낭송, 범청학련 황선대변인의 결의문낭독, 신창균 명예의장의 만세3창으로 1부순서 마침. 2부 문화공연은 민족춤패 '출'의 부채춤, 제주에서 온 노래모임 '청춘' 노래공연에 이어 범민련의 활동영상, 경인연합과 민애청, 우리나라, 희망새 등의 노래공연, 한총련 정재욱의장, 한청 한상봉의장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 의정부 추병원에서 민중의 벗 고 제종철 동지 여중생범대위 장례위원회 주최로 '민중의 벗 고 제종철 동지 여중생범대위

장례식이 유족과 친지 500여명이 모임가운데 열리다. 영결식에 이어 미2사단 앞과 의정부 동부광장에서 노제를 지낸다음, 오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 안장함. 삼가 명복을 빕니다.

24 서울지방법원 기자회견실에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청구 첫 심리와 관련 인혁당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있었음. 대책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재심청구의 충분조건이 된다며 재판부는 반드시 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다.

- 서울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주재로 인혁당재위사건 재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리가 열렸음. 변호인단은 '준헌법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증거위조나 수사관 가혹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아니어도 재심개시를 위한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주장.

25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평통사,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들은 '국방비 증액반대, 이라크파병 및 전쟁비용 부담반대 국회앞 집회' 를 열다. 민주노동당 윤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 참여연대 권상훈 간사 등이 복지비보다 많은 국방비 책정과 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KMH)이 경부고속철도건설비의 2배에 달한다며 국방비 책정 재검토를 촉구했고 국회 예·결산 위원장에 보내는 요구서한을 진관스님이 낭독.

- 4월혁명회가 열고있는 민족학교 6기 교육강좌가 향린교회에서 있었음. 이날의 국가보안법관련 강의는 송두율교수 구속과 11기 한총련 이적단체 임의규정 등 사례를 중심으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가 맡아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 침해요소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국회법사위원회에 제출하다.

26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자주평화촛불기념비 철거중단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취지여는말, 이관복 고문의 철거반대발언, 한상렬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지법 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한 집시법 등 위반혐의 첫공판이 열렸음. 김종일 집행위원장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모두진술, 검찰의 적접심문, 변호인의 반대심문, 증거·증인채택 등이 있었음.
- 전국민중연대는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손배·가압류 철폐,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노동자·농민·빈민 탄압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농성에들어가다.
- 지난 21일부터 기독교회관에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귀대를 거부하고 농성하고 있는 강철민 이병 격려방문하다.(권오헌)
- 송환비전향 장기수 김종호선생님 별세소식을 듣고 양심수후원회 등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소속단체 공동 조문광고를 내다.

27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검찰의 송두율교수 구속기소 규탄과 공안당국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접수 기자회견' 을 열다. 권오헌 대표의 여는인사말, 김세균 대표의 공안당국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 내용발표, 송두율교수부인 정정희 여사의 인사말이 있었음. 마치고 테러방지법, 집시법개악 화형식을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음.

28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KNCC 인권위와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 인권·종교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강철민 이병의 청와대면담요청 기자회견이 있었음. 황필규목사 사회로 문장식 인권위원장, 오종렬 의장, 효림 스님, 강민조 회장, 권오헌 회장 등의 지지연대 발언이 있었고 강철민 이병이 농성을 끝내며 이라크 파병반대 노무현대통령 면담요청의 발언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철민 이병은 함께 농성했던 지지자들과 청와대로 떠났으나 곧바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연행 광주상무대로 호송되다. 강이병은 연행되면서 군검찰이나 교도소에 간다해도 파병반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말하다.

- 대구지법(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한총련 11기 대의원으로서는 첫 선고공판에서 최용석 계명대 2003년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을 인정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다.
-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대학 총학생회와 한총련합법화 대책위 공동으로 '국민대 조현실 총학생회장의 안정적인 통원치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을 열다. 조현실 학생회장은 난소종양으로 우측난소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 6개월간 통원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 권오헌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규정 철회, 안정적 치료보장 발언, 민주노동당 조현경 서울시 학생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헌, 조현경 등 서울경찰청 이성규 보안1과장을 면담 안정적 통원치료 보장 요구하다.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Corea 평화연대 주최로 Corea 평화연대 이라크 현지조사팀의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다. 평화연대는 지난 11월 4일부터 12일동안 인간방패 활동을 했던 배상현씨와 임경란국장이 바그다드, 모술, 킬쿡, 하디사, 바스라 등 7개 지역에서 131명의 이라크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라크인 72%가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이 이라크에 도움이되지 않는다 했으며 85%는 주둔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며 반미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9일 국회행정자치위원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다.

29 서울 양재동 시민숲 대한항공기 버바상공 피폭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KAL 858기 가족회와 김현희 KAL 858기 실종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과 16주기 추모제를 지내고 내곡동 국정원에 가서 침묵시위를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답변촉구서한을 내다.

- 종묘공원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파병반대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다.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의 대회사, 강철민이병 투쟁보고, 방한중인 9·11 희생자 가족단체 〈피스풀 투모로우〉 대표인 데이빗 포터티씨의 전쟁반대 연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교보빌딩앞까지 평화행진하다.
-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청년학생과 시민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병반대 한·미 SOFA 전면개정, 오만한 미국규탄 자주평화 1주년기념촛불집회를 열다.
- 건국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범청학련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광수씨 석방을 위한 하루주점이 열려 격려 방문하다.

30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2003년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걷기대회'가 남산에서 있었음. 소속단체 성원 250여명이 국립극장 앞에 모인가운데 민 경우 집행위원 진행으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란 프레카드를 들고 자연스럽게 대열을 이루어 남산 옛 안기부 터까지 약 2.5km를 걷다. 안기부 터에 도착하여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선포대회를 열다. 권오헌 공동대표의 대회사, 송두율교수 부인 정정희 여사와 진보의련 피해자 권정기씨의 피해사례 발표, 한청 전상봉 의장과 김세균 송두율교수석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투쟁결의발언, 최병모 민변회장의 결의문 낭독 등으로 모든행사 마침.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여혜정, 윤병로, 윤성원, 신현부, 모지희, 신준철, 신다인,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이승미, 이재필, 김도균, 이득형, 이용준, 서효순 가족들, 김혜정, 민준홍, 권오헌 등이 함께 했고 신준철군이 기수로 활약했음.

- 양심수 121명에게 영치금 1만원 씩 보냈음.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만원을 보냄.
- 양심수 14명에게 월간지 '말'과 '민족21'을 보냈음.

##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현황

# 2003년 12월 5일 현재, 총 141명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12월 5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12월 5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20명, 노동자 87명, 재야 및 기타 23명, 군인 6명, 농민 5명이다.

11월 5일 현재 양심수 141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의 18.42%인 26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652명이다.*

| 신분별 분류 | | | | | |
|---|---|---|---|---|---|
| 총 | 학 생 | 노동자 | 재야 · 기타 | 군인 | 농민 |
| 141명 | 20명 | 87명 | 23명<br>(철거민 14 · 노점상 1) | 6명 | 5명 |

| 적용법규별 분류 | | | | | |
|---|---|---|---|---|---|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br>(업방 등) | 공무방해 | 폭력 | 화염병 |
| 26명<br>18.4% | 78명<br>51.0% | 27명<br>19.1% | 25명<br>17.7% | 65명<br>46.0% | 2명<br>1.4% |

| 기결 · 미결 분류 | | | | | |
|---|---|---|---|---|---|
| 구 분 | 학 생 | 노동자 | 재야 · 기타 | 군 인 | 농 민 |
| 기결 11명 | 2명 | 6명 | 1명 | 1명 | 1명 |
| 미결 130명 | 14명 | 81명 | 22명 | 5명 | 4명 |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 공무집행방해
  업방 : 업무방해